



함복희 | 강원대 국어국문학과 강사  
(ham6204@kangwon.ac.kr)

## 문학 속의 물

### 1. 죽음과 단절의 강

우리 문학사의 첫머리에서 만나게 되는 작품이 〈공무도하가〉이다. 이 〈공무도하가〉는 한역(漢譯)되어 전하는 것으로 오래된 고대가요이다. 이 노래에는 노래의 창작동기에 해당하는 배경설화가 함께 전한다. 배경설화는 다음과 같다. 과리자고라는 뱃사공이 새벽에 일어나 배를 짓고 있었는데, 머리가 센 미친 사람 하나가 머리를 풀고 술병을 낀 채 물살을 헤치며 건너가려 했다. 그의 아내가 뒤따르며 막아보려 했으나, 막지 못하고 결국 미친 이는 물에 빠져 죽었다. 이에 그의 아내는 공후라는 악기를 타며 공무도하(公無渡河)의 노래를 지었다. 소리가 매우 구슬뿔었는데 노래를 마치고는 스스로 물에 몸을 던져 죽었다. 과리자고가 돌아와 아내 여옥에게 그 노래를 들려주며 이야기를 하였더니, 여옥은 이를 슬퍼하여 공후를 타며 그 소리를 그대로 내었는데 듣고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여옥은 그 소리를 이웃에 사는 아나인 여용에게 전해 주었는데 이를 이름하여 〈공무도하가〉 또는 〈공후인〉이라 불렀다.

배경설화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4행으로 된 이 노래는 백발을 한 미친 사람이 이른 새벽에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

을 부리다가 물에 빠져죽은 익사의 노래 정도로 끝났을 것이다. 물가에서 일어난 이른 새벽의 해프닝 정도였을 이 노래는 배경설화로 인해 극적인 긴장감을 가지게 된다. 배경설화를 통해 이 노래를 간략하게 해석하자면 남편이 죽음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만류하다가 남편이 물에 빠져 죽자 함께 빠져 죽는다는 내용이다.

4행으로 된 이 시가의 첫 행에서 세 번째 행까지에 물이 등장한다. 이 작품에서 물의 의미는 우리 민족이 물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公無渡河(공무도하) 임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  
公竟渡河(공경도하) 임이 그에 물을 건너시네.  
墮河而死(타하이사)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當奈公何(당내공하) 임이여, 이 일을 어찌할꼬.

첫째 행 “公無渡河(공무도하)”에서 물(河)은 아직 오지 않은 두려움의 대상이다. 하지만 남편은 그 두려움의 대상을 향해 한 발씩 옮기고 있다. 둘째 행의 “公竟渡河(공경도

하"에서 물은 눈앞에 닥친 현실적인 두려움이다. 남편은 마침내 물을 건넌다. 이제 그 물은 돌이킬 수 없는 세계로 향하는 길이 되어버린다. 셋째 행 "墮河而死(타하이사)"에서는 물은 남편을 죽음으로 내몬 대상이다. 아니 '죽음의 길'이다. 남편의 죽음으로써 상황이 종결되고 물 이야기는 비로소 끝을 맺는다. 물을 향하고, 물로 들어가고, 물에서 최후를 맞는 이야기다.

〈공무도하기〉는 물로 인해 입을 잃은 여인의 비극적 상심(傷心)을 표현하고 있다. 여인은 죽음을 향해 한걸음씩 옮기는 입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말리지만 어찌된 일인지 남편은 물을 향해 끝없이 전진한다. 예나 지금이나 아내의 만류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아내의 만류와 절규가 절정에 달할 즈음하여 남편은 물속으로 완전히 들어가고 이승과의 인연도 막을 내린다.

이 노래에서 강은 단절이며 죽음이다. 물은 입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 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단절이 생긴 것이다. 이로 볼 때 고대인들에게 있어 물은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단절과 체험의 대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양의 경우 물은 극복의 대상이었고, 물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배를 만들어 띄웠다. 반면 동양적 사고에 의하면 고대인들에게 물은 두려움과 단절, 나아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대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상에서 죽음과 두려움을 먼저 체험하고 인지한 것은 삶에 대한 철학적 사고의 깊이가 그만큼 깊다는 의미도 될 것이다. 강에서 단절과 먼저 죽음을 떠올렸다고 해서 동양적 사고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할 일은 아니라는 뜻이다.

〈서경별곡〉 역시 입과의 단절을 가져오는 대상으로 물을 제시하고 있다.

서경(평양)이 서울이지만  
새로 닦은 곳인 작은 서울을 사랑합니다마는  
입과 이별하기보다는  
차라리 길쌈 배를 버리고라도  
사랑만 해주신다면 울면서 따르겠습니다.

구슬이 바위 위에 떨어질들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천 년을 홀로 살아간들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대동강이 넓은 줄을 몰라서  
배를 내어 놓았느냐, 사공아  
네 아내가 음란한 줄을 몰라서  
떠나는 배에 태웠느냐, 사공아.  
대동강 건너편 꽃을  
배를 타고 가기만 하면 꺾을 것입니다.

〈서경별곡〉

평양은 예로부터 색향(色鄕)이다. 여자 특히 기생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일 것이다. 대동강 가에는 못 남성들을 유혹하는 아리따고 요염한 기생들이 날마다 진을 쳤을 것이고, 그 유혹을 이기는 남정네가 어디 쉬웠을까?

위 시에서 여인은 길쌈 베가 생업이라고 했다. 여인이 여염집 아낙이 틀림없다는 증거이다. 하지만 이 여인은 사랑하는 임이 나를 떠난다고 하니 생업을 제쳐두고 입을 따라 갈까 한다. 지금이야 입을 위해 인생을 걸었다면 좋은 직업이라도 일단 버리고 따라나설 수 있겠지만 그 옛날에 그게 어디 쉬운 일이었을까? 하지만 여인은 생업도 버리고 따라나설 태세다.

여인이 사는 곳은 여인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 평양이다. 고려시대에 들어 평양은 제2의 수도를 동쪽과 서쪽에 하나씩 두었다. 동쪽의 수도는 동경(東京), 즉 지금의 경주이고 서쪽의 수도(西京)는 평양이다. 제2의 수도니 새로 재정비하였을 것이고, 얼마나 살기 좋았을까? 하지만 여인은 떠나고 싶다. 임이 떠나는 곳으로 함께 가고 싶다. 그곳이 어딘지는 안중에 없는듯하다. 가히 애정지상주의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럼에도, 다 버리고 떠나는 데도 먼저 해결되어야 할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임이 나를 사랑한다는 전제이다. 이 노래로만 보아서선 임이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는지 어쩐지는 알



기 어렵다. 여인이 입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것만은 틀림없다. 왜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갈 만한 준비를 마음으  
로 다 마친 상태이니까.

떠나는 입은 여인을 절대적으로 사랑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절대적으로 사랑한다면 안 가면 된다. 그런데 입을 떠난다고 한다. 떠나는 입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여인은 입을 잡지도 못하고, 입을 따라나서는 것은 더더욱 못한다. 입의 사랑에 대한 확신도 없거니와 아마도 입은 여인을 동반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무대는 대동강이다. 저 푸른 물은 오늘따라 더 넓어 보인다. 입은 대동강에서 배를 탈 것이다. 대동강 건너편에는 누가 있는가? 아마도 못 남정네를 유혹하는 요염한 기녀들이 있을 것이다. 마음은 급하지만 별도리가 없다. 대동강의 푸른 물결을 눈앞에 두고 보니 저 입을 언제 다시 볼지 막막할진대 입을 건네주기 위한 뱃사공의 무심한 손길이 원망스럽기 짝이 없다. 느닷없이 뱃사공에 대한 원망이 시작된다.

“네 아내가 음란한 줄을 몰라서 떠나는 배에 태웠느냐, 사공아.”

오늘날 같았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입을 보내야 하는 여인의 입장에서 뱃사공은 입과의 이별에 대한 원인 제공자쯤으로 보인다. 뱃사공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겠지만 바람난 남정네를 대동강 건너편으로 건네준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닐 것이고, 여인들이 뱃사공을 향해 던지는 푸념도 원망도 다반사였으리라.

일상적인 대동강의 넓이는 여인에게 있어 체념을 동반해

야 하는 단절감의 거리이다. 뱃사공이 느끼는 대동강의 넓이는 노동의 시간만큼, 그리고 일상적인 거리였을 것이다. 여인이 느끼는 대동강의 정서적 거리감은 아마도 지구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아니었을까? 가히 짐작이 간다.

이 노래에서 여인은 인고와 순종을 미덕으로 간직한 전통적인 여인 상과는 거리가 멀다. 자신의 내면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입에 대한 감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배를 타고 들어가면 대동강 건너편 꽃을 꺾을 것이라는 원망어린 말도 서슴지 않는다. 입에 대한 불안과 질투심은 절정에 달한다. 여기서 꽃은 대동강 건너편에 있는 또 다른 여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동강을 건너자마자 취할 수 있는 여인인 것으로 보아 여염집 여인은 아닌, 아름다운 용모를 지닌 기녀였으리라.

‘대동강’은 입과 나를 갈라놓는 경계이다. 입은 대동강을 건너면 다른 여인의 차지가 될 것이다. ‘대동강’은 이별의 강, 절망의 강, 단절의 강이다.

## 2. 씻김의 강

여성의 한을 <진주난봉가> 보다 더 잘 묘사한 노래가 있을까? 옛날 여성들은 장님 3년, 병어리 3년, 귀머거리 3년의 시집살이를 하면서 민요에 말을 거는 경우가 많았다. 병어리, 귀머거리 시집살이를 하는 동안에도 표현의 욕구는 차올랐을 테고, 표현하지 못한 감정들은 화병이나 우울증으로 도졌을 것이다. 여인들로 하여금 말문을 트게 해준 것이 민요였다. 시부모나 시집 구성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민요자락에 담았다. 그래서 여성 민요는 여성의 역사다.

울도 담도 없는 집에서 시집살이 삼 년 만에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



애야, 아가, 며늘 아가, 진주 낭군 오실 테니  
진주 남강 빨래 가라

진주 남강 빨래 가니 산도 좋고 물도 좋아  
우당탕탕 두들기는데 난데없는 말굽소리  
결눈으로 힐끗 보니 하늘같은 갓을 쓰고  
구름 같은 말을 타고서 못 일듯이 지나가더라.

흰 빨래는 희게 빨고 검은 빨래 검게 빨아  
집이라고 돌아오니 사랑방이 소요하다.

시아머니 하시는 말씀,  
애야, 아가, 며늘 아가,  
진주 낭군 오시었으니 사랑방에 들어가라.  
  
사랑방에 올라보니 온갖 가지 술을 놓고

기생첩을 옆에 끼고 권주가를 부르더라.  
건넌방에 내려 와서 아홉 가지 약을 먹고  
비단 석 자 빼어 매어 목을 매어 죽였더라.

진주 낭군 이 말 듣고 버선발로 뛰어나와  
내 이럴 줄 내 몰랐다. 사랑 사랑 내 사랑아  
기생 정은 삼 년이요, 본대 정은 백 년인데  
내 이럴 줄 왜 몰랐던가.

사랑 사랑 내 사랑아  
어화 동동 내 사랑아

민요 <진주남봉가>

울도 담도 없는 가난한 집에 시집와서 삼 년을 살고 나니,  
시아머니가 며느리에게 진주 낭군을 보려거든 진주 남강에  
빨래를 가라고 한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오랜만에 돌아

오는 남편이 시앗을 달고 들어오는 장면을 목격하게 하고 싶은 것이다. 시집살이만도 충분히 어려운데 남편 바람피는 것까지 봐야 하는 며느리의 입장을 그 옛날 시어머니도 겪었으리라.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학대함으로써 바람피는 자식과 한 통속이면서 고통을 가학적으로 대물림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준다.

진주 남강은 며느리가 빨래하는 일터이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곳이기도 했으리라. '흰 빨래는 희게 빨고 검은 빨래 검게 빨아에서 볼 수 있듯이 며느리에게 요구되는 노동의 강도는 넘치고 과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며느리는 진주 남강이 좋았을 것이다. 빨래 방망이 한번 두들기고 시어머니 얼굴 한번 떠올리고, 방망이 한번 두들기고 시누이 얼굴 한번 떠올리고 했을 것이다.

'진주 남강에 빨래를 가니 물도나 좋고 돌도나 좋고'

이 대목은 빨래터가 며느리의 해방구였음을 알게 한다. 흰 빨래는 희게 검은 빨래는 검게 두들기고 행구면서 설움도 풀어나고 억울함도 씻어내고 분함도 삭였으리라. 그러고는 행군 빨래를 이고 시댁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빨래하러 가는 일터 진주 남강은 며느리의 맺힘을 풀어주고 행귀주는 역할을 해주는 가슴 트이는 공간이었다.

그런데 며느리의 마음 다잡음도 그리 오래 가지 못한다. 우당탕탕 방망이질을 하면서 한바탕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하늘같은 것을 쓰고 구름 같은 말을 탄 한량 남편이 자신을 못 본 체하며 지나간다.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남편을 보러거든 사랑방에 가보라고 한다. 사랑방에는 오색 가지 안주와 남편, 기생첩이 있다. 결국 며느리는 목을 맨다. 그제야 남편이 첩의 정은 삼 년이고 본처 정은 백 년이라는 사실로 후회한다.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던 여인들이 어떤 고초를 감내하면서 살아야 했는지를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노래이다. 그네들이 택할 수 있었던 항변의 길은 죽어라 하고 참거나 죽는 것뿐이었을 것이다. 온몸을 던져 시어머니의 학대와 남편의 배신에 맞서는 방법이 죽음밖에 없었던 여인들에게 빨래터는

시집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유일한 공간이었다. 폐쇄적인 시가(媳家)의 일원에서 벗어나 자신으로서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었던 곳, 빨래 방망이를 두드리면서 분노를 희석하고 흐르는 물살에 빨래를 행구면서 시댁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다시 얻었던 곳, 강이다.

다음은 정희성의 시 <저문강에 삼을 씻고>이다.

흐르는 것이 물뿐이라.

우리가 저와 같아서

강변에 나가 삼을 씻으며

거기 슬픔도 퍼다 버린다.

일이 끝나 저물어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보며

쭈그러 앉아 담배나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이다.

삼자루에 맡긴 한 생애가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셋강 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뜨는구나.

우리가 저와 같아서

흐르는 물에 삼을 씻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정희성 <저문강에 삼을 씻고>

이 시에서 노동자인 화자는 하루의 노동을 끝내고 강물에 삼을 씻으며 인생의 허무와 슬픔을 씻어낸다. 자기 성찰은 비우고 씻어버림으로써 가능해진다. 삼자루에 맡긴 인생은 때로는 절망스럽고 때로는 무기력할 것이다. 하지만 썩은 물일 지언정 흐르는 물에 삼을 씻음으로써 그 날 하루의 고달픔, 설움, 피로, 우울함을 털어버릴 수 있을 것이다. 비록 힘겹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삶이지만 씻어냄으로써 다시 시작하는 자기애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 3. 만남, 합일 그리고 화합의 물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가문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으랴.  
우리가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우르르 우르르 비 오는 소리로 흐른다면.

흐르고 흘러서 저물녘엔  
저 혼자 깊어지는 강물에 누워  
죽은 나무뿌리를 적시기라도 한다면.  
아아, 아직 처녀인  
부끄러운 바다에 닿는다면.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불로 만나려 한다.  
벌써 숲이 된 뼈 하나가  
세상에 불타는 것들을 쓰다듬고 있나니

만 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저 불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푸시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올 때는 인적 그친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강은교 <우리가 물이 되어>

이 시에서 물은 원시적 생명력을 나타낸다. 1연에서는 물이 되어 만나고 싶은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긍정적이거나 낙관적이기도 하고 비관적이기도 하다. 때로는 이별의 슬픔을 감내해야 하고, 현실적인 고통을 받아들여야 한다. 물은 이러한 상황은 만남에 대한 기대감을 부추긴다. 이때 만남은 물과 같은 것이다. 아무 것도 계산하지 않고 거스르지 않고 묻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만남을

열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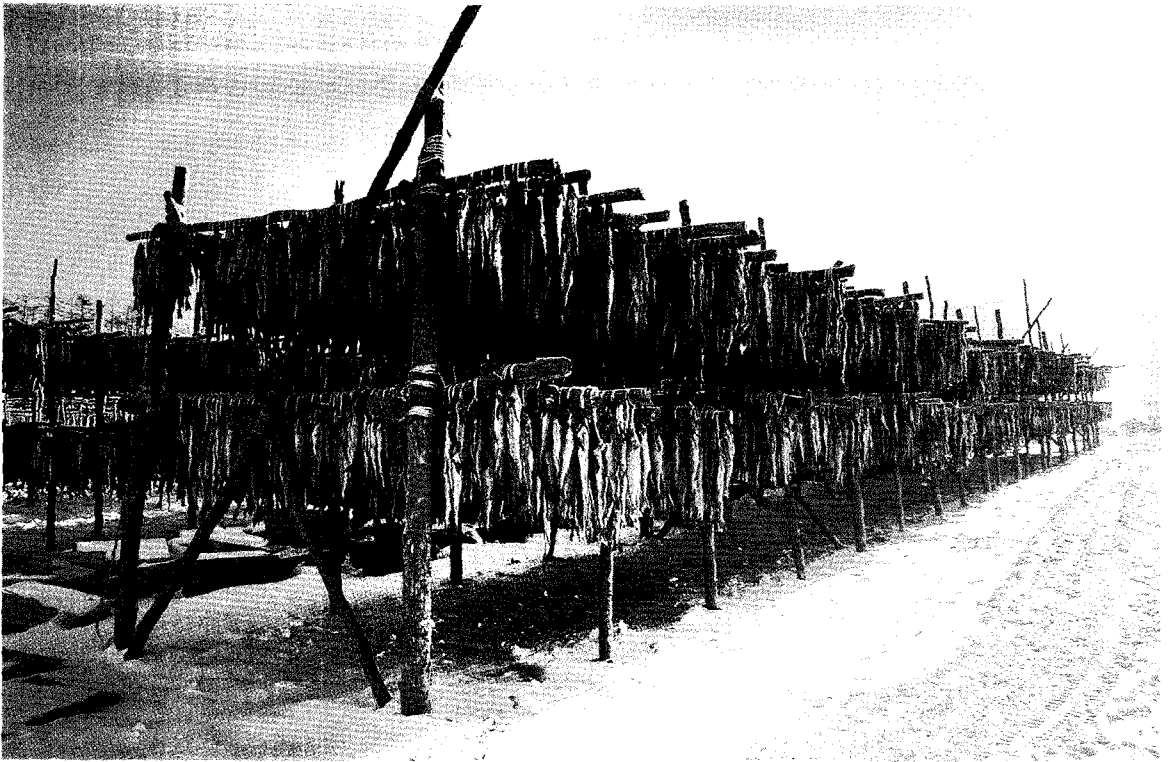
여기서 우리는 연대 집단이나 세력을 의미할 수도 있고 특별한 개인들을 의미할 수도 있다. 어쨌든 물을 매개로 만나는 이들은 동일한 목표를 지향하는 사람들이다. 물신주의나 황폐함이 일상화되어버린 세상의 가뭄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물로서의 만남을 희구하는 것이다.

현대인에게 가장 문제는 단절이다. '너'는 '너'이고 '나'는 '나'이다. 소통의 부재를 별로 불편해 하지 않는 현대인들, 대부분의 문제가 소통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르는 현대인들에게 이 시에서 '물'이 의미하는 바는 상징적이다. 물은 '나'와 '너'를 '우리'로 합일(合一)시킬 수 있는 매체이다. 우리는 '우리'라는 이기적인 집단주의에 갇히길 언제나 소망하지만 언제나 건강한 '우리'이기를 거부할 준비가 되어 있다.

디지털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기에 바쁘다. 디지털은 현대 문명을 순식간에 바꾸었다. 개인 간의 소통 없이도 미니홈피나 개인 블로그를 통해 세상과 교감을 해 나간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의 지속은 인간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메마르게 한다. 이 시는 각자 개인으로만 존재하여 메말라가는 관계를 주체하지 못하는 현대인들을 인간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진정한 우리가 될 줄 아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너와 내가 '우리'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불이 아닌 '물'이 되는 것, 또는 '물'을 매개로, 물로 만나는 것이다. 물에 구분이 있고 경계가 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다음은 최승호의 시 <복어>이다.

밤의 식료품 가게  
케케묵은 먼지 속에  
죽어서 하루 더 손때 묻고  
터무니없이 하루 더 기다리는  
복어들.  
복어들의 일 개 분대가  
나란히 꼬챙이에 꿰어져 있었다.  
나는 죽음이 꿰뚫은 대가리를 말한 셈이다.



한 쾌의 허가  
 자갈처럼 죄다 딱딱했다.  
 나는 말의 변비증을 앓는 사람들과  
 무덤 속의 병어리를 말한 셈이다.  
 말라붙고 짜부라진 눈,  
 북어들의 뺨뺨한 지느러미,  
 막대기 같은 생각  
 빛나지 않는 막대기 같은 사람들이  
 가슴에 싱싱한 지느러미를 달고  
 헤엄쳐 갈 데 없는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느닷없이  
 북어들이 커다랗게 입을 벌리고  
 거봐,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귀가 먹먹하도록 부르짖고 있었다.

최승호의 <북어>

이 시는 말라빠진 정서와 황폐한 정신을 소유한 현대인을 비판한 것이다. 북어는 넓은 바다에서 물살을 가르며 헤엄치

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욕망조차 있었다. 말라빠진 북어에게 남은 것은 한 쾌의 북어를 연결한 꼬챙이와 자갈처럼 딱딱한 혀, 말라붙고 짜부라진 눈이다. 북어에게 필요한 것은 물이다. 먼지 쌓인 식료품 가게 속의 북어에게는 물이 없다. 북어는 바로 삶의 지향점을 잃고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의 초상이다.

북어는 말의 변비증을 앓고 무덤 속의 병어리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이다. 배부른 현대인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말'을 통한 대화이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말을 잃어간다. 대화를 잃어간다. 급기야는 말의 변비증에 걸린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진실한 말이 나오지 않고, 전달되지 않는 무덤 속의 병어리다. 소통이 없는 현대인들, 소통의 방법조차 망각하는 현대인들. 그렇게 단절과 벽 속에서 헤엄칠 곳도, 헤엄쳤던 기억도 잊은 물고기처럼 살아간다. 생각도, 말도, 꿈도, 희망도 상실한 사람들의 자화상이다.

말의 변비증을 앓는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표현의 욕구 실현이다. 북어에게 물이 필요하듯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말', '대화', '소통'이다. 강은교의 시에서처럼 '물로 만나' 소통을 이룰 때 최승호의 시에서 말하는 말의 변비증

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천상병의 시 <찬물>이다.

하늘 나는 새처럼, 하늘투성처럼,  
 나는 그저 찬물투성입니다.  
 생기가 있어야  
 인생을 놓치지 않는 법입니다.  
 나의 노래는 미약하지만  
 그 노래 끝에는  
 반드시 찬물 생기(生氣)가 있어서  
 먼 데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천상병 <찬물>

이 시에서 찬물은 생명의 기운을 돋워주는 에너지의 원천이다. 하늘을 나는 새처럼, 하늘투성처럼 내가 어느새 하늘의 일부가 되고 찬물의 생명력을 지니게 된다. 찬물은 나를 깨어있게 하고 과멸을 소생으로 복원시키는 합일의 힘이 지고 있다. 찬물은 차갑게 깨어있는 이성의 생명력이다.

천상병의 <봄비>는 생명력을 넘어 역동적인 물을 보여주고 있다.

봄비가 온다 봄비가 온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에  
 봄비가 온다 봄비가 온다.

따사로운 이 감촉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어주시는 큰 은총이다.

봄비는 소리없이 오는 것 같다.  
 부드럽고 촉촉한 봄비에  
 온화한 기분으로 맞아도 좋다.

천상병 <봄비>

봄비는 겨울의 흑한을 이기고, 녹이는 물인 동시에 새로운 생명의 탄생에 필요한 역동적인 물이다. 봄비는 천상의 물이면서 대지에 은총을 내리는 물이다. 봄비야말로 대지와 인간을, 인간과 인간을 하나로 화합케 하는 매개물이다. 봄비가 대지를 촉촉하게 적시는 동안 만물은 합일의 경지에 든다. ☺

